

# 타이거즈 'V11' 위해 손·꽂 잡았다

〈손영민〉 〈곽정철〉

**KIA 광정철·손영민 재회**  
**복귀→재활→복귀 광정철**  
**시련에 하늘 원망 했지만**  
**버틸만한 고통인거 같다**

**임의탈퇴 해제 손영민**  
**운동이 행복임을 깨달아**  
**몸 상태 괜찮아 자신있다**

벌써 7년 전의 기억이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고 KIA 손영민과 광정철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2009년 KIA 타이거즈의 정규시즌 우승과 10번째 한국시리즈 제패에는 'SKY라인'이 있었다. '전천후 잠수함' 손영민과 '돌직구' 광정철 그리고 '특급 마무리' 유동훈의 이니셜을 딴 막강 불펜을 부르던 말이다.

7년이 지난 2016시즌은 'SKY'라인에게 복귀 시즌이다. 코치로 변신한 마무리 유동훈이 1군에서 선수들 조련에 나섰고, 광정철과 손영민도 그리웠던 곳으로 돌아왔다. 광정철은 약콩 같던 재활을 끝내고 복귀에 성공했다. 시범경기에서 6.2이닝 무실점 행진을 펼친 그는 1765일만의 1군 등판에서 1792일 만에 세이프를 올리며 부활을 알렸다. 혈행장애로 개막 10일 만에 엔트리에서 말소됐지만, 지난 13일 1군 엔트리에 재등록했다.

혈행장애로 재활을 했던 광정철은 영광의 시간을 함께했던 1년 후배 손영민과 합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재회했다. 군복무를 끝낸 손영민이 지난달 28일 임의탈퇴가 해제되면서 다시 KIA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시련의 시간을 보낸 만큼 오늘이 더 소중하고 감사한 두 사람이다. 미안함도 크다. 두 사람은 부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끼쳐서 많은 이들에게 미안하다.

1군으로 돌아온 광정철은 "다시 부상이 오면서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왜 이렇게 시련을 주나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버틸 만한 고통을 준 거 같다. 괜찮다"고 웃었다.

손영민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KIA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원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는 2012년 음주운전 사고로 많은 것을 잃었다. 구단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그에게 임의탈퇴 조치를 내렸고, 손영민은 익숙했던 마운드를 떠나야 했다.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손영민은 군복무를 끝내고 돌아와 KIA의 문을 두드렸다.

손영민은 "돌아와서 보니 구장도 그렇고 많은 것이 달라져 있다. 후회도 많이 했다. 운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군복무 기간 개인 운동을 하면서 공도 던졌다. 몸 상태는 괜찮다"고 언급했다.

마운드로 돌아온 광정철에 비해 손영민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4년의 공백을 딛고 예전의 몸을 만들어야 하고, 마운드를 밟기 위해 남아있는 과정도 있다. 손영민은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폼위 손상 행위'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았다. 그는 복귀가 허가된 4월28일을 기준으로 정규시즌과 퓨처스 리그 50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또 올해 안에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채워야 한다.

손영민은 "모범을 보여야 할 프로야구 선수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 만큼 당연한 조치다. 격일로 주변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기는 하지만 마음은 편하다. 나를 다시 써주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준비를 다하고 기다려야 한다. 운동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목표는 하나다. 우승의 주역으로 다시 영광의 현장에 서고 싶다는 것이다.

광정철과 손영민은 "자신 있다. 돌아와 V11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활짝 웃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2009년 우승의 주역인 KIA 타이거즈의 투수 손영민과 광정철이 'V11'의 의미를 담아 손가락으로 11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 외로운 4번 타자, 박병호

동점 발판 2루타 치며 4경기 연속 안타... 팀은 8-10 패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4번 타자로 출전한 2경기에서 모두 장타를 뽑아내며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박병호는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방문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 이어 2경기 연속이자 올 시즌 3번째 4번 타자로 나선 박병호는 동점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즌 6번째 2루타를 쳐냈다.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간 박병호의 시즌 타율은 0.257(109타수 28안타)을 유지했다. 팀은 8-10으로 패했다.

미네소타는 최고 투수 유망주인 호세 베

리오스가 1회를 버티지 못하고 7실점하고 무너졌다. 1회말이 끝났을 때 스코어는 0-8이었다.

하지만 미네소타는 2회초 2점, 3회초 1점, 4회초 4점을 뽑아내며 1점 차까지 따라붙는 데 성공했다. 박병호는 1회초 2사 2루에서 3루수 땅볼, 3회초 2사에서 3루수 땅볼, 4회초 2사 1, 3루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며 팀의 추격 과정에 힘을 보태지 못했다.

그러나 7회초 4번째 타석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7-8로 뒤진 7회초 2사에서 타석에 들어선 박병호는 디트로이트의 우완 에이스 조던 지머먼의 2구째 92마일(약 148km)짜리 바깥쪽 스트라이크존에 걸치는 직구

를 통타해 좌중간 담장을 직접 때리는 2루타로 연결했다. 타구가 조금만 더 뻗어나갔다면 지난 1일 시즌 6호 홈런을 뽑아냈던 지머먼을 상대로 또 한 번 홈런포를 신고하고 두 자릿수 홈런을 채울 수 있었다. 이어 평범한 뜬공을 우익수 J.D. 마르티네스가 잡았다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틈을 타 박병호는 8-8 동점을 만드는 득점을 올렸다. 하지만 미네소타는 7회말과 8회말에 각각 솔로 홈런을 내주고 다시 리드를 빼앗겼다.

피츠버그는 애틀랜타와 홈경기를 8-5 승리로 장식했다. 클린트 허들 피츠버그 감독은 전날 홈런과 결승 2루타로 팀을 연패에서 구한 강정호(29)에게 휴식을 줬다. 강정호는 18일 부상 복귀 이후 처음 홈판 앞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여왕이 온다...우승하러

LPGA 킹스밀 챔피언십 19일 개막

박인비 한달만의 복귀...시즌 첫 승 사냥  
'2주 휴식' 전인지 출전...대배 첫 승 도전

부상으로 한 달간 쉬었던 '골프 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사진)가 필드로 돌아온다.

박인비는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 리조트 리버코스(파71·6379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복귀한다. 박인비는 지난달 스윙잉 스퀴츠 LPGA 클래식부터 텍사스 슛아웃,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까지 3개 대회를 건너뛰고 휴식을 취했다. 왼쪽 엄지손가락 부근 인대가 늘어나 스윙을 제대로 못 하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과 트레이너의 조언을 따른 것이다.

박인비의 매니지먼트사인 갤럭시아 SM은 "좋아진 상태라고 들었다. 실제 경기에서 많이 움직였을 때의 상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박인비는 다음달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과 7월 US여자오픈 등 메이저대회와 8월 리우올림픽 등 대형 대회로 이어지는 대장정에 나선다. 킹스밀 챔피언십은 박인비가 컨디션 끌어 올리는 중요한 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 대회에서 시즌 첫 우승도 노린다.

세계랭킹 2위인 박인비는 이 대회에



서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와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는 지난 3월 KIA 클래식과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이미 시즌 2승을 거뒀다.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이 대회에서 LPGA 투어 정식 데뷔 첫 승에 도전한다. 전인지도 앞서 2주일 휴식기를 가졌다. 그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샬롯파스컵에 불참했다가 이번 대회에서 복귀한다.

지난달 텍사스 슛아웃에서 '134전 135기'로 데뷔 첫 승을 거둔 신지은(24·한화)은 2승을 향해 기세 몰이에 나선다. '리우올림픽 출전권 경쟁'을 벌이는 양희영(27·PNS)과 김세영(23·미래에셋)도 우승과 랭킹 끌어 올리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이 대회에 출전한다. 김세영은 3월 JTBC 파운더스컵 이후 시즌 2승째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 그녀가 온다...매치퀸 되려

박성현 오늘 KPGA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출전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최강자로 우뚝 선 '장타여왕' 박성현(23·넵스)이 매치퀸에 도전한다.

박성현은 19일부터 나흘 동안 강원도 춘천시 라데나 골프장(파72·6323야드)에서 열리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KLPGA투어 대회 가운데 유일하게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64명만 출전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1대1 맞대결에서 6번 이겨야 한다. 총타수를 겨루는 스트로크 방식과 달리 강호도 초반에 탈락하는 등 변수가 많다. 한번 지면 곧장 짐을 싸야 하기에 매 경기가 벼랑 끝 승부다.

박성현은 유달리 이 대회 우승에 욕심이 많다. 장타를 앞세운 공격적인 플레이를 즐기는 박성현은 "매치 플레이 방식 대회가 마음에 쏙 든다"면서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꼭 한번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즌 초반 강릉군을 이어가는 박성현은 대회 출전 일정을 짤 때 이 대회만큼은 꼭 출전할 대회로 일찌감치 점 찍어

냈다. 박성현은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4개 투어 대항전 더퀸즈 대회에서 매치플레이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장기인 장타를 마음껏 휘두르며 진가를 발휘했다. 최종일 싱글매치플레이에서 일본 간판 선수 우에다 모모코를 일방적으로 몰아부친 끝에 5홀차 대승을 거뒀다.

이번 시즌 3승이나 올린 박성현은 이번 대회에서는 1번 시드를 받는다. 상급랭킹 상위 32명은 나머지 32명 가운데 1회전 상대를 준비행기로 선택한다. 박성현이 첫 상대로 누구를 뽑을 지도 관심사다. 1회전 상대를 비롯한 대진은 대회 개막 하루 전인 18일 오전에 결정한다.

절대 강자인 박성현이지만 우승을 장담할 수 없다. 매치플레이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대회가 열리는 코스 가운데 가장 빠르고 어려운 그린의 승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한편 대회 타이틀 스폰서 두산중공업은 갤럭시아 등에서 기량을 겨룬다. 자랑하는 골프대회 디오픈 참가권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 광주 김찬영 역도 30kg급 이하 3관왕

전남 김민영 원반던지기 2년 연속 금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20일까지 강릉 열전

제 1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17일 개막,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3000명의 장애인 선수·임원 등이 참여,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대회는 이날 오후 강릉 원주체육관 해람관 화관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강릉·원주 일대 16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선수들은 15개 종목(육상종목 5개·골볼·보치아·수영·육상·탁구, 보급종목 10개·농구·디스크골프·배구·플로어볼 등)에서 기량을 겨룬다.

광주시는 선수단 100명(선수 59·임원 13·보조자 7·지도자 21)을 파견, 8개 종목에서 금메달 22개, 은메달 6개, 동메

달 15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날 대회에서는 김찬영(10·선광학교·지적장애)군이 역도 30kg급 이하 부문에 출전, 3관왕을 차지하는 휴먼 드라마를 썼다.

전남도의 경우 특수학교 8개교 등 12개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 선수 86명, 임원 62명 등 148명의 선수단을 파견, 8개 종목에서 금메달 17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김민영(17·은광학교·시각장애)은 첫 날 원반던지기에서 출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8일 포환던지기에서도 금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다. /김지우기자 dok2000@